

자료해석영역

1. 다음 <표>는 2014년~2017년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다. <보기>를 근거로 하여 <표>의 A~E에 해당하는 가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종류별 가축의 사육두수

(단위: 천마리)

가축	2014년 4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	10,090	10,187	10,367	10,328	10,432	10,782	10,514
B	3,028	2,909	2,963	2,885	3,034	3,120	2,997
C	156,410	164,131	170,147	141,382	172,743	160,154	170,551
D	445	428	418	416	414	411	409
E	7,539	9,772	8,109	5,570	6,460	6,987	7,530

<표 2> 종류별 가축의 사육가구(농장)수

(단위: 가구(농장))

가축	2014년 4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	5,177	4,909	4,574	4,585	4,537	4,545	4,406
B	116,441	106,505	102,194	101,121	100,320	99,513	98,432
C	2,989	3,004	2,993	2,575	3,205	2,957	2,969
D	6,847	6,979	6,822	6,766	6,759	6,578	6,596
E	605	722	566	390	469	508	510

<보 기>

-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사육가구(농장)수와 전년동기 대비 사육가구(농장)수가 모두 감소한 가축은 돼지와 한·육우이다.
-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육두수가 증가한 가축은 한·육우, 돼지, 닭이고, 감소한 가축은 젓소, 오리이다.
- 2015년부터 매년 4분기를 비교할 때, 닭과 오리는 전년동기 대비 사육가구(농장)수 증감의 방향이 같다.
-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육두수의 변동률이 가장 큰 가축은 오리이다.
- 2015년부터 매년 4분기를 비교할 때, 전년동기 대비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축은 돼지와 닭이다.

-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u>E</u> |
| ① | 한·육우 | 돼지 | 닭 | 오리 | 젓소 |
| ② | 돼지 | 한·육우 | 닭 | 젓소 | 오리 |
| ③ | 돼지 | 한·육우 | 젓소 | 닭 | 오리 |
| ④ | 돼지 | 오리 | 닭 | 젓소 | 한·육우 |
| ⑤ | 오리 | 젓소 | 한·육우 | 닭 | 돼지 |

2. 다음 <표>는 1910년 하와이 거주민의 부모 출신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910년 하와이 거주민의 부모 출신지

(단위: 명)

아버지\어머니	하와이	미국본토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인도	브라질	기타
	하와이	미국본토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인도	브라질	기타
하와이	6,825	311	85	553	2	2	429	14	372
미국본토	30	820	0	9	0	0	18	0	109
일본	1	0	15,849	2	0	0	1	0	10
중국	50	6	0	4,054	0	1	0	0	0
한국	0	0	0	0	883	0	0	0	1
필리핀	0	4	0	0	0	466	0	0	0
인도	36	23	4	17	0	0	4,156	2	115
브라질	1	0	4	5	0	0	2	992	14
기타	12	53	0	0	0	0	2	3	1,688

- ① 아버지의 출신지가 기타인 경우는 1,758명이다.
- ② 중국 출신 어머니와 하와이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는 하와이 출신 어머니와 중국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보다 10배 이상 많다.
- ③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출신인 사람들의 수는 31,805명이다.
- ④ 어머니가 미국본토 출신인 경우가 아버지의 출신지가 미국본토인 경우보다 더 많다.
- ⑤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지만 아버지는 인도 출신이 아닌 사람들 중 아버지의 출신지가 미국본토인 경우는 약 11.7%이다.

3. 다음 <표>는 세계 각국의 15세~64세 인구비중과 GDP성장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세계 각국의 15세~64세 인구비중(%)

연도 국가	2010(A)	2011	2012	2013	2014	2015(B)	증감(%p) (=B-A)
대한민국	72.7	72.8	72.9	73.0	73.0	72.9	0.2
미국	67.2	67.2	67.0	66.8	66.6	66.3	(a)
영국	66.1	65.8	65.5	65.1	64.8	64.5	(b)
독일	65.9	65.9	65.9	66.0	66.0	65.9	0
프랑스	64.5	64.2	63.8	63.3	62.8	62.4	(c)
이탈리아	65.5	65.2	64.9	64.5	64.2	63.9	-1.6
캐나다	69.4	69.2	68.9	68.6	68.3	67.9	-1.5
일본	63.8	63.2	62.6	62.0	61.4	60.8	-3.0
중국	(d)	74.4	74.2	74.0	73.6	73.2	-1.1
인도	(e)	64.3	64.6	65.0	65.3	65.6	1.6
러시아	(f)	71.8	71.4	70.9	70.4	69.9	-2.1
브라질	(g)	68.3	68.5	68.7	68.9	69.1	1.2

<표 2> 세계 각국의 GDP성장률(%)

연도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성장률의 평균 (2010년~2015년)
대한민국	6.5	3.7	2.3	2.9	3.3	2.6	3.6
미국	2.5	1.6	2.2	1.7	2.4	2.6	(h)
영국	1.9	1.5	1.3	1.9	3.1	2.2	(i)
독일	4.1	3.7	0.5	0.5	1.6	(j)	2.0
프랑스	2.0	2.1	0.2	0.6	0.6	(k)	1.1
이탈리아	1.7	0.6	-2.8	-1.7	0.1	0.7	-0.2
캐나다	3.1	3.1	1.7	2.5	2.6	0.9	(l)
일본	4.2	-0.1	1.5	2.0	0.3	1.2	1.5
중국	10.6	9.5	7.9	7.8	7.3	(m)	8.3
인도	10.3	6.6	5.5	6.5	7.2	(n)	7.3
러시아	4.5	4.3	3.5	1.3	0.7	-2.8	(o)
브라질	7.5	4.0	1.9	3.0	0.5	-3.8	2.2

※ GDP성장률의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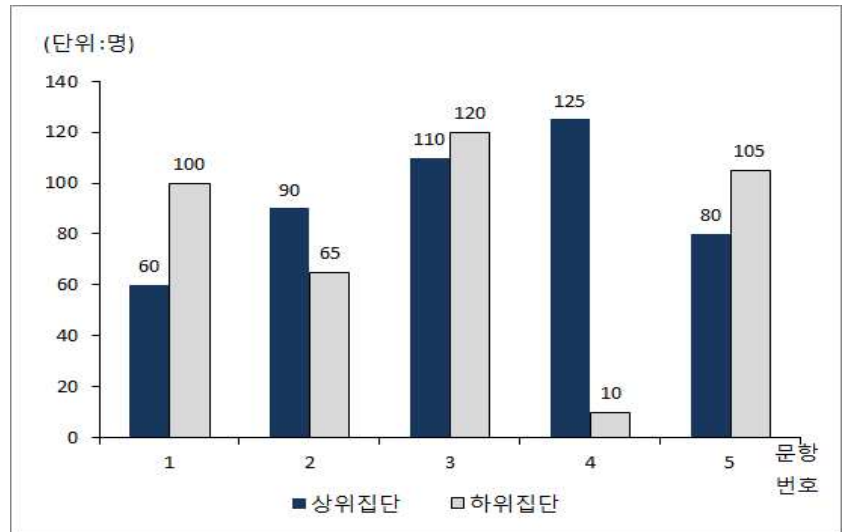
- ㄱ. (d), (e), (f), (g)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d), (f), (e), (g)의 순이다.
 ㄴ. (m)보다 (n)이 크다.
 ㄷ. (a), (b), (c) 중에서 가장 큰 것은 (a)이며, 가장 작은 것은 (c)이다.
 ㄹ. (h), (i), (l), (o)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l), (h), (i), (o)의 순이다.
 ㅁ. (j)보다 (k)가 크다.

- ① ㄱ, ㄴ
 ③ ㄴ, ㄷ, ㄹ
 ⑤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④ ㄴ, ㄷ, ㅁ

4. 다음 <그림>과 <표>는 총 300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4지선다형 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정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상·하위 집단별 정답자 분포



※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시험의 총점을 기준으로 각각 150명으로 구분하였음.

<표> 응시자의 선택지 선택 비율 분포

선택지 문항번호	(a)	(b)	(c)	(d)	정답
1	16.7	13.3	53.3	16.7	(c)
2	8.3	51.7	25.0	15.0	(b)
3	76.7	6.7	10.7	6.0	(a)
4	18.7	27.3	9.0	45.0	(d)
5	7.7	15.0	61.7	15.7	(c)

※ 300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정 보>

- 문항 변별도 = $\frac{\text{상위 집단 정답자 수} - \text{하위 집단 정답자 수}}{\left(\frac{\text{응시자 수}}{2}\right)}$
 ○ 문항 정답률(%) = $\frac{\text{정답자 수}}{\text{응시자 수}} \times 100$
 ○ 오답지 매력도(%) = $\frac{100 - \text{문항 정답률}(\%)}{3}$

- ① 오답지 매력도가 세 번째로 높은 문항에 대해 상위 집단 응시자 중 50% 이상이 오답을 선택했다.
 ② 30명 미만의 응시자가 선택한 선택지가 1개 이상 있는 문항 수는 4개이다.
 ③ 문항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에 대해 선택지 ⑥을 선택한 응시자 수는 90명 미만이다.
 ④ 문항 변별도가 0.1 이상인 문항들의 문항 정답률은 모두 60% 미만이다.
 ⑤ 문항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의 문항 변별도는 0보다 높다.

5. 다음 <표>는 2016년 광역시별 미혼모 및 미혼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보기>를 근거로 하여 A~F에 해당하는 광역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6년 광역시별 미혼모 및 미혼부 현황

(단위: 명)

광역시	미혼모	미혼부	합계
A	()	556	2,256
B	797	361	()
C	()	433	1,637
D	986	399	1,385
E	1,451	()	2,081
F	()	()	607
합계	6,542	2,582	9,124

<보 기>

- ㄱ. 미혼모 수가 많은 광역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대구광역시
가 세 번째이다.
- ㄴ. 부산광역시 미혼모 수는 울산광역시 미혼부 수의 8배 이상이다.
- ㄷ.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미혼모 수의 합은 광역시 전체 미
혼모 수의 20% 미만이다.
- ㄹ. 미혼부 수 대비 미혼모 수의 비율이 큰 광역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광주광역시가 세 번째이다.

A
B
C
D
E
F

- ①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 ②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③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 ④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⑤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6. 다음 <표>는 육아휴직 시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현황

(단위: %)

구분		사업체 수(개)	계약직 고용	일용직 고용	정규직 고용	유희인력으로 대체	직무에 따라 다름	처리 사례 없음
전체		581	20.1	2.4	15.2	46.3	0.9	15.1
업종	광공업	113	13.3	3.5	12.4	53.1	0.9	16.8
	건설업	73	8.2	0.0	19.2	49.3	1.4	21.9
	음식·숙박업	95	16.8	4.2	14.8	46.3	2.1	15.8
	전기·운수·통신	136	22.1	0.7	7.3	55.9	0.0	14.0
	개인·공공서비스	164	30.5	3.0	22.0	32.3	0.6	11.6
규모	9인 이하	75	21.3	1.3	16.0	42.7	0.0	18.7
	10~29인	143	19.6	2.8	15.3	39.2	0.0	23.1
	30~99인	162	17.9	3.7	13.6	50.0	1.2	13.6
	100~299인	111	21.6	1.8	18.1	45.0	0.9	12.6
	300인 이상	90	22.2	1.1	13.3	55.6	2.2	5.6

<보 기>

- ㉠. 계약직을 고용하거나 유휴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체의 경우, 전기·운수·통신 업종의 사업체 수가 개인·공공서비스 업종의 사업체 수보다 더 많다.
- ㉡.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유휴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직무에 따라 다른 경우는 가장 적다.
- ㉢. 업무공백 처리 사례가 없다고 밝힌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이다.
- ㉣.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80% 이상이다.

- ① $\neg, \perp$
 ② $\neg, \sqcup$
 ③ $\perp, \sqsubset$
 ④ $\neg, \sqsubset, \sqcup$
 ⑤ $\perp, \sqsubset, \sqcup$

9. 다음 <표>는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의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 추이

학교	개교년도	표준공시지가(만원/㎡)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frac{y-x}{x} \times 100$)
		개교 당시(x)	2017년(y)	
A	2002	152	351	130.9
B	2001	97	226	(가)
C	2000	106	(라)	215.1
D	2000	145	583	302.1
E	2000	74	164	121.6
F	2000	107	355	(나)
G	1999	92	306	232.6
H	1998	77	223	(다)
I	1998	108	278	157.4
J	1997	78	222	184.6
K	1997	220	949	331.4

※ 단, 제시된 학교만을 고려함.

<보 기>

7. 개교 당시 대비 2017년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가), (나), (다)를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면 (다), (가), (나) 순이다.

ㄴ. 2017년 C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 (라)는 약 334이다.

㉔. 개교 당시와 비교했을 때, 2017년에 I 인근 지역 표준공시지가
는 A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ㄷ. 개교 당시와 비교하여 2017년에 인근 지역의 표준공시지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K이다.

- ① $\neg$, $\perp$
 ② $\perp$, $\neg$
 ③ $\sqsubset$, $\neg$
 ④ $\neg$, $\perp$, $\neg$
 ⑤ $\perp$, $\sqsubset$, $\neg$

10. 다음 <표>는 한국으로 입국한 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국적별 · 성별 아시아 국적 외국인 입국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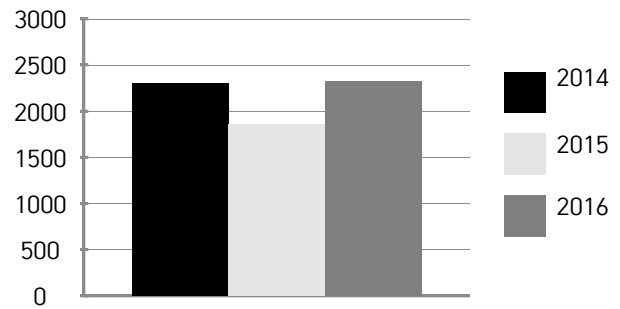
(단위: 명, %)

		2016년		2015년		2014년
		입국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입국자 수	전년대비 증감률	입국자 수
중국	남자	3,043,390	21.8	2,498,397	-3.1	2,579,481
	여자	4,957,742	45.6	3,404,417	-0.5	3,420,811
일본	남자	987,129	12.9	874,010	-17.1	1,054,286
	여자	1,334,713	35.5	985,180	-20.9	1,245,875
태국	남자	196,975	18.8	165,775	-22.8	214,797
	여자	277,287	32.5	209,246	-17.9	254,822
베트남	남자	150,477	36.5	110,204	14.5	96,247
	여자	148,607	66.8	89,119	21.1	73,602
인도	남자	184,296	28.0	143,987	4.3	138,014
	여자	12,477	21.1	10,307	0.1	10,300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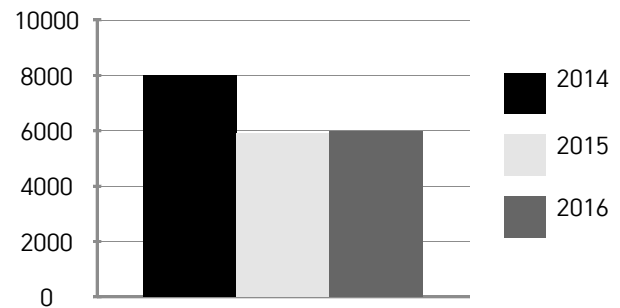
7. 연도별 일본인 입국자 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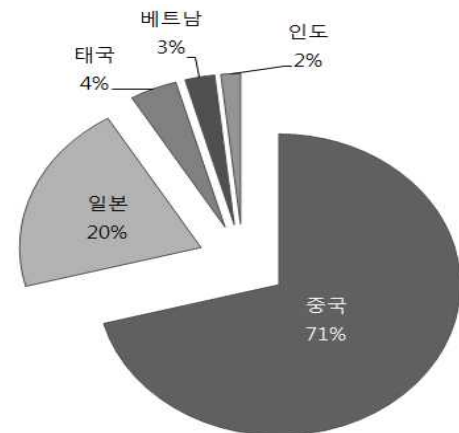


ㄴ. 연도별 중국인 입국자 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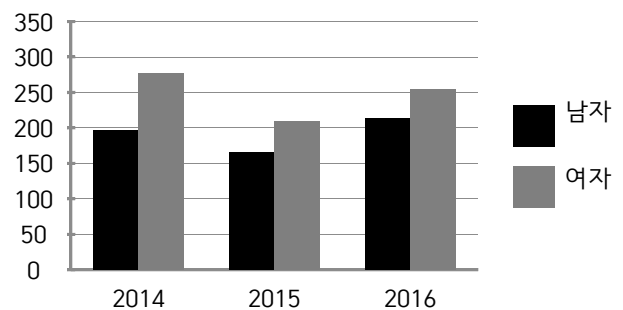


ㄷ. 2016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 비율



ㄷ. 연도별·성별 태국인 입국자 수

(단위: 천명)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sqsubset$
④ $\neg$, $\sqsubset$, $\exists$
⑤ $\perp$, $\sqsubset$, $\exists$

11. 다음 <표>는 2016년 연령대별·행선지별 내국인 여행객의 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보기>에 근거하여 A~F에 해당하는 행선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6년 연령대별·행선지별 내국인 여행객의 수

(단위: 명)

연령대 행선지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일본	121,096	202,076	226,266	199,886	140,547	113,716
대만	6,109	13,436	23,153	22,422	16,249	11,220
A	14,144	42,368	56,132	41,346	21,774	10,069
B	41,304	100,370	97,694	96,135	71,642	36,459
C	7,513	7,852	15,731	12,397	6,971	4,096
필리핀	33,535	63,228	61,872	55,092	30,968	14,137
D	8,626	11,815	29,995	49,758	41,786	22,448
E	2,115	5,054	5,557	5,095	3,174	1,534
F	720	1,478	2,780	3,723	2,217	885
중국	125,509	144,644	303,214	424,386	293,559	174,924

※ A~F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 중 하나임.

<보 기>

- 61세 이상 내국인 여행객이 전체 내국인 여행객의 10% 이상인 행선지는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이다.
- 31~40세 내국인 여행객이 30세 이하 내국인 여행객보다 많은 행선지는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중국이다.
- 태국이 행선지인 전체 내국인 여행객의 수는 중국이 행선지인 전체 내국인 여행객 수의 약 30%이다.
- 61세 이상 내국인 여행객의 수가 20세 이하 내국인 여행객의 수보다 많은 행선지는 대만, 중국, 몽골, 베트남이다.
- 21~30세 내국인 여행객 수 대비 20세 이하 내국인 여행객 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행선지는 홍콩이다.

- |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u>E</u> | <u>F</u> |
| ① | 홍콩 | 태국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인도 | 몽골 |
| ② | 홍콩 | 태국 | 몽골 | 베트남 | 인도 | 말레이시아 |
| ③ | 인도 | 태국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홍콩 | 몽골 |
| ④ | 인도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태국 | 홍콩 | 몽골 |
| ⑤ | 인도 | 베트남 | 몽골 | 태국 | 홍콩 | 말레이시아 |

12. 甲마을은 총 200가구로 구성된 농촌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감자, 고구마, 토마토를 경작하며 각 가구는 감자, 고구마, 토마토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작물을 경작한다. 다음 <표>와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甲마을의 작물 경작 상황

경작 작물	감자	고구마	토마토	감자, 고구마	감자, 토마토	고구마, 토마토	감자, 고구마, 토마토
가구 수	100	120	70	50	30	20	()

<정 보>

- 1) 甲마을의 가구 분포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25%, 중소득층 가구가 50%, 고소득층 가구가 25%이다.
- 2) 저소득층에서는 토마토 농사를 짓지 않으며 한 가구에 한 가지씩의 작물만 경작한다.
- 3) 저소득층에서 감자와 고구마 농사의 경작 비율은 4:6이다.
- 4) 중소득층에서만 감자, 고구마, 토마토를 모두 함께 경작하는 가구가 존재한다.
- 5) 중소득층에서 감자와 고구마 두 가지 작물만 함께 경작하는 가구의 비율은 40%이다.
- 6) 중소득층에서 토마토만을 경작하는 가구는 없다.
- 7) 고소득층에서 감자 혹은 고구마만 따로 경작하는 가구는 없다.
- 8) 고소득층에서는 감자나 고구마를 반드시 토마토와 함께 경작하며 그 비율은 동일하다.
- 9) 고소득층에서 토마토만 경작하는 가구의 비율은 60%이다.

<보 기>

중소득층에서 고구마와 토마토 두 가지 작물만 함께 경작하는 가구의 수는 A이고, 고소득층에서 감자와 토마토 두 가지 작물만 함께 경작하는 가구의 수는 B이다.

- | | | |
|---|----------|----------|
| | <u>A</u> | <u>B</u> |
| ① | 0 | 10 |
| ② | 0 | 20 |
| ③ | 10 | 0 |
| ④ | 10 | 20 |
| ⑤ | 20 | 10 |

13. 다음 <표>는 2011년~2016년 1군 법정전염병의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군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법정전염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콜레라	3	0	3	0	0	4	10
장티푸스	148	129	156	()	121	()	926
파라티푸스	56	()	54	37	()	56	305
세균성이질	171	90	294	110	88	()	866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71	58	61	111	71	()	476
A형간염	()	1,197	()	1,307	1,804	4,679	15,375
합계	5,970	1,532	1,435	1,816	2,128	5,077	17,958

※ 단, 1군 법정전염병은 표에 제시된 6개뿐임.

<보 기>

- ㄱ.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군 법정전염병 중 A형간염의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 ㄴ. 2011년 대비 2016년 발생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1군 법정전염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고, 발생 건수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1군 법정전염병은 세균성이질이다.
- ㄷ. 2011년~2016년 동안 A형간염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와 파라티푸스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일치한다.
- ㄹ. 2016년 1군 법정전염병 중 발생 건수의 비중이 2011년보다 증가한 1군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다.

- ① $\neg$, $\perp$
② $\neg$, $\top$
③ $\perp$, $\bot$
④ $\neg$, $\perp$, $\bot$
⑤ $\neg$, $\top$, $\bot$

14. 다음 <표>는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추이

연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증감		증감		증감
1990	7.4	1.3	20.0	8.8	13.5	-2.8
2000	()	-	34.3	14.3	9.9	-3.6
2007	()	-	-	-	-	-
2010	14.8	-	67.2	32.9	6.7	-3.2
2017	18.8	5.3	104.8	50.2	5.3	-2.1
2020	21.8	-	123.7	56.5	4.6	-2.1
2030	38.2	-	212.1	88.4	()	-
2040	58.2	-	303.2	91.1	1.7	-
2050	72.6	-	399.0	95.8	1.4	-
2060	82.6	-	()	-	1.2	-

$$\text{※ 노년부양비}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15세 ~ 64세 인구}} \times 100$$

$$\text{※ 노령화지수}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0세 ~ 14세 인구}} \times 100$$

$$\text{※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frac{\text{15세} \sim \text{64세 인구}}{\text{65세 이상 인구}}$$

※ 증감 = 해당 시점의 수치 - 10년 전 시점의 수치

※ 각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표 2〉 연령대별 인구 수

(단위: 천명)

연도 연령대	1990	2000	2010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0세 ~ 14세	10,974	9,911	7,979	6,751	6,574	6,109	5,647	4,716	4,265
15세 ~ 64세	29,701	33,702	36,209	37,620	37,266	33,878	29,431	25,905	22,444
65세 이상	2,195	3,395	5,366	7,076	8,134	12,955	17,120	18,813	18,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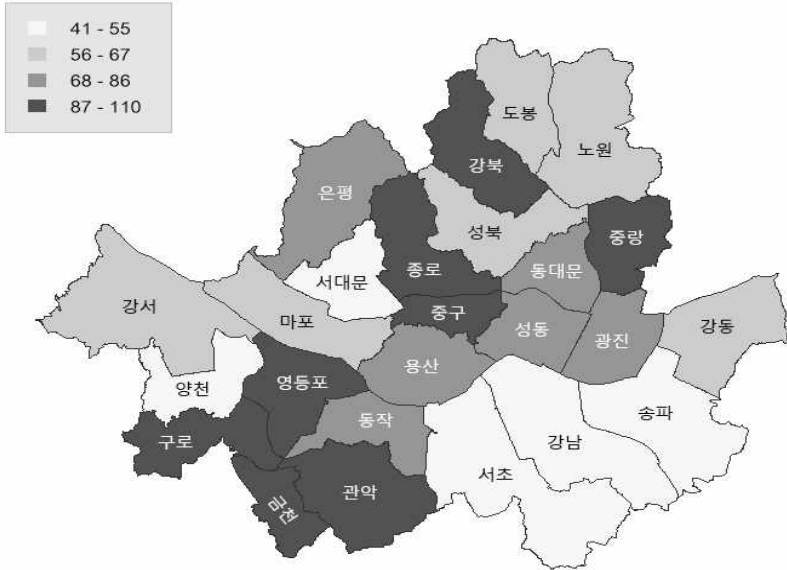
<보 기>

- ㄱ. 2000년의 노년부양비는 10.1이다.
 ㄴ. 2007년의 노년부양비는 13.5이다.
 ㄷ. 2060년의 노령화지수는 434.6이다.
 ㄹ. 2030년의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3.6이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sqsubset$, $\sqsupset$
④ $\neg$, $\perp$, $\sqsubset$
⑤ $\perp$, $\sqsubset$, $\sqsupset$

15. 다음 <그림>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수에 대한 자료이며, <표>는 자치구별 인구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수
(단위: 명)



<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단위: 명)

자치구	인구	자치구	인구	자치구	인구
종로구	164,640	도봉구	347,338	영등포구	401,908
중구	134,174	노원구	562,278	동작구	410,703
용산구	243,922	은평구	491,899	관악구	522,849
성동구	312,933	서대문구	326,479	서초구	447,177
광진구	372,414	마포구	387,776	강남구	565,731
동대문구	367,769	양천구	476,627	송파구	668,366
중랑구	414,554	강서구	607,877	강동구	446,760
성북구	458,261	구로구	443,288		
강북구	329,042	금천구	253,646		

<보 기>

- ㄱ. 노원구의 결핵환자 수는 378명에서 484명 사이이다.
- ㄴ. 양천구의 결핵환자 수는 종로구의 결핵환자 수보다 많다.
- ㄷ. 강남구의 결핵환자 수와 서초구의 결핵환자 수의 합은 강북구의 결핵환자 수보다 적다.
- ㄹ.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결핵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이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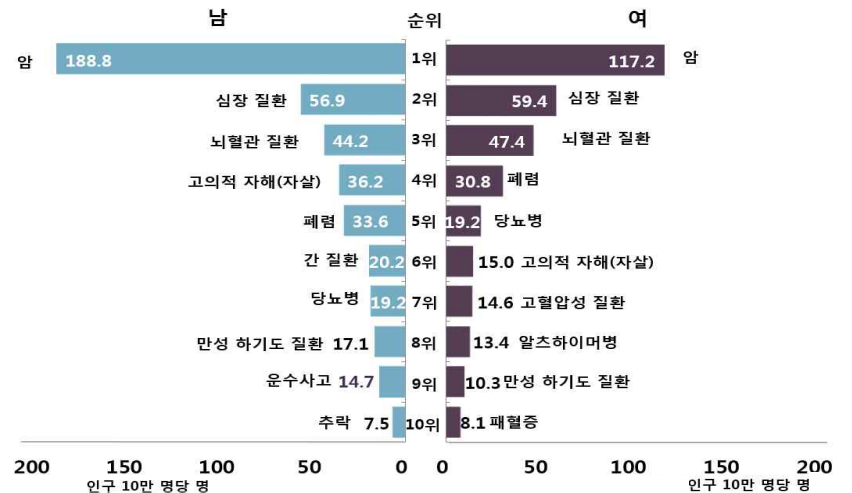
16. 다음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추이(2010년~2016년)
(단위: 명)

연 도	사망자 수			조(粗)사망률			1일 평균 사망자 수
	남녀 전체	남	여	남녀 전체	남	여	
2010	255,405	142,358	113,047	512.0	570.0	454.0	700
2011	257,396	143,250	114,146	513.6	571.1	456.0	705
2012	267,221	147,372	119,849	530.8	585.1	476.4	730
2013	266,257	146,599	119,658	526.6	579.8	473.4	729
2014	267,692	147,321	120,371	527.3	580.6	474.1	733
2015	275,895	150,449	125,446	541.5	591.0	492.1	756
2016	280,827	152,529	128,298	549.5	597.5	501.5	767

※ 조(粗)사망률이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함.

<그림> 성별 사망원인 순위(2016년)



<보 기>

- ㄱ. 2011년~2016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매년 증가했다.
- ㄴ. 2011년~2016년에 전체 사망자 수와 조(粗)사망률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며, 전체 사망자 수와 조(粗)사망률이 전년대비 감소한 해에는 조(粗)사망률 성비(남/여)도 감소했다.
- ㄷ. 2016년도에 여성의 사망원인별 조(粗)사망률 상위 10개 중 남성보다 조(粗)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2개(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다.
- ㄹ. 2016년도에 남성, 여성 사망원인별 조(粗)사망률 상위 10개의 조(粗)사망률의 합이 각 성별의 조(粗)사망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7. 다음 <표>는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자료이다. <표>에 근거하여 <보기>의 A~D 출장자를 국외여비가 많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국외여비 지급 기준

(단위: 달러)

직 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교수, 부교수	가	35	166	107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전임강사, 조교수, 연구교수	가	30	145	81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연구보조원	가	26	129	67
	나	26	87	49
	다	26	64	37
	라	26	56	30

※ 국외여비에서 항공료는 제외됨.
※ 일비와 식비는 출장 일수를 기준으로 계상하며, 숙박비는 숙박 일수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출장 기간이 6박 8일인 경우, 일비와 식비는 8일을 기준으로 하고 숙박비는 6박을 기준으로 함.

<표 2> 출장 지역(도시 및 국가)의 등급별 구분

등급	지역(도시 및 국가)
가	동경, 뉴욕,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나	아시아주·대양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캐나다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오만, 우간다
다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리비아,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감비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출장 도시와 해당 도시가 소속된 국가가 다른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도시의 등급에 따름.

<보 기>

국외출장자	직위	출장지	출장기간
A	연구보조원	모스크바	4박 6일
B	조교수	북경	5박 6일
C	부교수	카자흐스탄	5박 6일
D	교수	동경	3박 4일

- ① A-B-C-D
- ② A-D-C-B
- ③ C-D-A-B
- ④ D-A-B-C
- ⑤ D-A-C-B

18. 다음 <표>는 甲국의 경제지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甲국의 경제지표 현황(2011년~2015년)

(단위: 조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명목GDP(A)	1,332.7	1,377.5	1,429.4	1,485.1	1,558.6
조세총액(B)	244.5	257.0	255.7	267.2	288.9
국세	192.4	203.1	201.9	205.5	217.9
지방세	52.1	53.9	53.8	61.7	71.0
사회보장기여금(C)	75.3	84.1	91.5	98.2	104.7
공적연금	32.3	35.7	38.7	40.1	42.8
국민연금	27.4	30.0	32.9	34.1	36.4
공무원연금	3.0	3.3	3.4	3.6	3.9
군인연금	0.3	0.4	0.4	0.5	0.5
사학연금	1.6	2.0	2.0	1.9	2.0
건강보험	31.2	34.4	38.0	41.6	44.3
요양보험	2.0	2.2	2.4	2.7	2.9
고용보험	5.0	6.3	7.0	8.0	8.6
산재보험	4.8	5.5	5.4	5.8	6.1
합계(B+C)	319.8	341.1	347.2	365.4	393.6

※ 조세부담률(%) = $\frac{\text{조세총액}}{\text{명목 GDP}} \times 100$
※ 국민부담률(%) = $\frac{\text{조세총액} + \text{사회보장기여금}}{\text{명목 GDP}} \times 100$
※ 사회보장기여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됨.
※ 단, 제시된 기간만을 고려함.

<보 기>

- ㄱ. 2011년에 비해 2015년 국민부담률은 증가했다.
- ㄴ. 명목GDP가 가장 낮은 해에 조세부담률 또한 가장 낮다.
- ㄷ. 공적연금은 매년 사회보장기여금의 40% 이상이다.
- ㄹ.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합은 매년 건강보험보다 적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9. 다음 <표>는 카드사별, 금리구간별 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카드사별 및 금리구간별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금리구간 카드사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합계
A	잔액	700	713,753	3,114,427	1,549,522	480,365	5,858,767
	비중	0.01	12.18	53.16	26.45	8.20	100.00
B	잔액	12,562	673,174	1,847,177	1,735,623	363,731	4,632,267
	비중	0.27	14.53	39.88	37.47	7.85	100.00
C	잔액	9,535	720,712	1,238,465	1,459,994	710,745	4,139,451
	비중	0.23	17.41	29.92	35.27	17.17	100.00
D	잔액	0	497,705	1,108,427	1,246,733	438,869	3,291,734
	비중	0.00	15.12	33.67	37.87	13.34	100.00
E	잔액	41,573	836,460	739,704	889,391	112,718	2,619,846
	비중	1.59	31.93	28.23	33.95	4.30	100.00
F	잔액	9,598	592,451	665,888	661,514	237,673	2,167,124
	비중	0.44	27.34	30.73	30.52	10.97	100.00
G	잔액	41,090	302,800	567,114	1,010,318	30,973	1,952,295
	비중	2.10	15.51	29.05	51.75	1.59	100.00
카드사 합계	잔액	115,058	4,337,055	9,281,202	8,553,095	2,375,074	24,661,484
	비중	0.47	17.59	37.63	34.68	9.63	100.00

- ① 모든 카드사는 20% 이상 금리의 대출 잔액보다 5% 이상 10% 미만 금리의 대출 잔액이 더 많다.
- ② 절반 이상의 카드사가 15% 이상 20% 미만 금리 구간에 가장 많은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 ③ 모든 카드사의 5% 미만 금리 대출 잔액의 합계는 20% 이상 금리의 대출 잔액이 A~G 중 두 번째로 적은 카드사의 20% 이상 금리의 대출 잔액보다 적다.
- ④ 5% 이상 10% 미만 금리 구간에서 A 카드사의 대출 잔액은 같은 구간 G 카드사의 대출 잔액보다 많다.
- ⑤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카드사의 15% 이상 금리 구간 대출 잔액은 대출 잔액이 두 번째로 적은 카드사의 동일 구간 대출 잔액보다 많다.

20. 다음 <표>는 미래사회의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미래사회의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2010년	2050년		2100년	
			기후위험 사회	기후안전 사회	기후위험 사회	기후안전 사회
기후	평균기온(℃)	12.5	14.6	13.8	16.4	13.8
	강수량(mm)	1,307.7	1,381.3	1,391.3	1,506.4	1,309.3
인구	인구(천명)	50,516	45,089	51,822	20,528	39,928
	합계출산율(명)	1.23	1.38	1.81	1.40	2.10
	노인인구 비율(%)	10.9	46.7	45.5	50.3	38.4
국가경제	GDP(조원)	1,153	1,774	4,354	1,835	6,005
지역경제	재정자립도(%)	54.8	72.6	78.6	87.8	97.0
경제구조	3차산업 비중(%)	66.7	74.7	78.9	77.8	82.9
국제경제	수출 비중(%)	55.9	57.4	57.6	57.9	58.2
생산	생산성 지수 (2010년=100)	100.0	435.8	591.0	889.9	1,009.6
토지이용 변화	도시지역(%)	4.0	16.7	4.6	18.2	4.6
	산림지역(%)	64.5	60.0	64.7	59.1	64.7
에너지	지역별 1차 에너지 수요(Mtoe)	262.6	433.8	328.9	252.3	207.7

※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수 대비 노인인구 수의 비율을 나타냄.

※ 3차산업 비중은 GDP 대비 3차산업 생산액을 나타냄.

※ 수출 비중은 GDP 대비 수출액을 나타냄.

<보 기>

- ㄱ. 국민 1인당 GDP는 2100년의 기후안전사회가 2050년의 기후 안전사회보다 2배 이상 높다.
- ㄴ. 노인인구 수는 2050년의 기후위험사회가 2100년의 기후위험 사회보다 2배 이상 많다.
- ㄷ. 2050년 기후위험사회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35% 이상 증가하였다.
- ㄹ. 인구와 관련된 세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 <표>의 지표 중 기 후안전사회의 2050년 대비 2100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표 는 생산성 지수이다.

- ① $\neg$, $\perp$
② $\neg$, $\top$
③ $\perp$, $\top$
④ $\perp$, $\bot$
⑤ $\top$, $\bot$

21. 다음 <표>는 지역별 시청 및 교육청의 원문공개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D에 해당하는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지역별 시청 및 교육청 원문공개 현황

기관 지역	시청			교육청	
	등록건수	원문 공개건수	주민1천명당 원문공개건수	등록건수	원문 공개건수
서울	132,288	94,641	9.60	1,365,293	459,081
A	61,771	45,058	18.20	687,924	190,091
B	95,681	71,109	20.49	502,525	115,365
C	26,797	19,326	13.20	397,725	91,258
D	63,203	36,081	12.24	918,699	187,076
대전	44,226	30,107	20.04	384,624	88,366
울산	31,219	20,670	17.74	360,491	72,660

※ 원문공개율(%) = $\frac{\text{원문공개건수}}{\text{등록건수}} \times 100$

<조 건>

- 교육청의 지역 주민 1천 명당 원문공개건수는 대구가 가장 많다.
- 광주시청의 원문공개율은 대전시청보다는 높고, 대구시청보다는 낮다.
- 시청의 원문공개율이 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의 3배 이상인 지역은 부산, 광주, 울산이다.
- 인천의 주민 수는 대전의 주민 수와 울산의 주민 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 ① | 광주 | 대구 | 부산 | 인천 |
| ② | 광주 | 부산 | 대구 | 인천 |
| ③ | 대구 | 부산 | 인천 | 광주 |
| ④ | 대구 | 부산 | 광주 | 인천 |
| ⑤ | 인천 | 대구 | 광주 | 부산 |

22. 다음 <표>는 디지털기기별 접근성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디지털기기별 접근성 지수

(단위: %)

구분	A국			OECD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데스크톱	83.9	72.4	63.7	79.6	68.6	60.1
노트북	22.6	31.5	45.0	53.1	71.2	74.5
TV	96.1	90.8	89.1	89.0	91.2	94.3
비디오 콘솔	31.8	23.9	22.1	51.1	53.7	49.3
MP3 플레이어	81.1	74.1	50.4	82.9	75.3	57.6
프린터	75.7	72.6	62.1	75.9	72.8	66.7
USB	75.9	72.6	61.7	77.2	83.7	77.9
태블릿PC	11.8	13.6	26.3	21.1	23.5	54.5
휴대전화	86.4	87.0	91.0	69.9	71.8	91.5
PDA	26.3	28.8	29.2	57.0	54.8	30.9
전자책	8.9	9.2	10.3	11.8	12.1	14.8

- ※ 각 수치는 가정에서 해당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임.
- ※ 단, 제시된 디지털기기만을 고려함.

- 2015년 A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데스크톱밖에 없다.
- 2014년 A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데스크톱과 휴대전화밖에 없다.
- 각 디지털기기 항목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A국과 OECD 평균 접근성 지수가 모두 증가한 항목은 5개이다.
- 각각의 모든 접근성 지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항목은 2015년 A국의 휴대전화 항목이다.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ECD 평균은 매년 감소하고 A국은 매년 증가한 항목은 PDA뿐이다.

23. 다음 <표>는 기업 규모별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제조업 노동생산성(대기업)

연도	대기업	구분			전년 대비 증가율(%)		
		부가가치 (십억원)	종사자 (명)	노동 생산성 (백만원)	부가가치	종사자	노동 생산성
2001		119,970	630,124	190	-	-	-
2002		132,038	616,326	214	10.1	-2.2	12.6
2003		135,430	619,012	219	(A)	0.4	2.3
2004		158,910	628,956	253	17.3	1.6	15.5
2005		160,592	632,730	254	1.1	0.6	0.4
2006		176,817	660,004	268	10.1	4.3	5.5
2007		191,149	646,309	()	8.1	-2.1	10.4
2008		210,720	631,054	334	10.2	-2.4	(C)
2009		198,558	625,483	317	-5.8	-0.9	(D)
2010		234,362	653,975	358	18.0	4.6	12.9
2011		259,714	695,464	373	10.8	6.3	4.2
2012		258,286	703,065	367	-0.5	1.1	-1.6
2013		248,717	682,805	364	(J)	-2.9	-0.8

〈표 2〉 제조업 노동생산성(중소기업)

연도	중소 기업	구분		전년대비 증가율(%)		
	부가가치 (십억원)	종사자 (명)	노동 생산성 (백만원)	부가가치	종사자	노동 생산성
2001	114,625	1,645,527	70	-	-	-
2002	125,461	1,709,282	73	9.5	(E)	4.3
2003	134,018	1,714,455	78	(B)	(F)	6.8
2004	143,301	1,699,426	84	6.9	(G)	7.7
2005	156,727	1,754,558	89	9.4	(H)	6.0
2006	169,522	1,773,349	96	8.2	(I)	7.9
2007	179,928	1,836,011	()	6.1	3.5	2.1
2008	189,430	1,774,987	107	5.3	-3.3	9.2
2009	187,158	1,790,671	105	-1.2	0.9	-1.9
2010	200,766	1,943,514	103	7.3	8.5	-1.9
2011	213,775	1,972,013	108	6.5	1.5	4.9
2012	216,506	2,000,561	108	1.3	1.4	0.0
2013	220,446	2,055,340	107	(K)	2.7	-0.9

$$\text{※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 \frac{\text{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text{대기업의 노동생산성}} \times 100$$

<보 기>

- ㄱ. A보다 B가 크다.
- ㄴ. C는 약 12.8이고, D는 약 -5.1이다.
- ㄷ. 2007년 기준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를 넘지 않는다.
- ㄹ. 종사자 증가율인 E, F, G, H, I 중 가장 큰 두 개는 E와 I이다.
- ㅁ. J는 약 -3.7이고, K는 약 1.8이다.

- ① $\neg$, $\perp$
 ② $\perp$, $\exists$
 ③ $\neg$, $\perp$, $\exists$
 ④ $\neg$, $\perp$, $\forall$
 ⑤ $\neg$, $\exists$, $\forall$

24. 다음 <표>는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정부출자 현황과 재무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기관별 정부출자 현황(2017년)

(단위: 억원)

기관명	자본금	정부출자액
한국석유공사	102,078	102,078
한국광물자원공사	18,904	18,877
한국가스공사	4,615	1,207

〈표 2〉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기관별 재무 현황

(단위: 조원)

기관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 석유공사	부채	20.8	18.0	18.5	18.5	19.0
	순자산	10.8	10.7	10.3	8.4	4.2
	자본금	8.97	9.74	10.03	10.09	10.21
한국광물 자원공사	부채	1.8	2.3	3.5	4.0	4.6
	순자산	1.2	1.3	1.7	1.8	0.1
	자본금	1.00	1.20	1.49	1.71	1.89
한국 가스공사	부채	28.0	32.3	34.7	37.0	32.3
	순자산	8.0	8.4	8.9	9.7	10.1
	자본금	0.39	0.39	0.44	0.45	0.46

$$\text{※ 정부지분율(\%)} = \frac{\text{정부출자액}}{\text{자본금}} \times 100$$
$$\text{※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순자산}} \times 100$$

※ 단, 제시된 공기업만을 고려함.

<보 기>

- ㉮. 2017년도 전년대비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2017년 기준 정부지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기업이다.
- ㉯. 2017년도 전년대비 부채비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다.
- ㉺. 제시된 기간 동안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들의 자본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 부채비율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순이다.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③ $\neg, \perp, \sqsubset$
④ $\neg, \sqsubset, \sqsupset$
⑤ $\perp, \sqsubset, \sqsupset$

25. 다음 <표>는 2011년~2017년 동안 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유제품의 브랜드별 판매액에 대한 자료이다. <정보>를 근거로 할 때, (가)~(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1년~2017년 유제품의 브랜드별 판매액
(단위: 백만원)

연도 브랜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	1,104	1,233	1,280	(나)	1,820	1,965	2,200
B	946	1,020	1,145	1,285	1,742	1,677	2,019
C	1,049	1,089	994	838	1,079	1,256	1,759
D	664	780	889	728	1,021	1,140	1,323
E	565	690	642	702	(다)	949	1,005
F	498	502	482	557	608	796	827
G	803	(가)	941	(라)	1,320	1,451	1,776
기 타	697	710	631	574	605	682	798
합 계	6,326	()	7,004	()	()	9,916	11,707

<정 보>

- C의 2015년도 전년대비 판매액 증가율은 A보다 낮다.
- 기타를 제외하고, 2015년도의 전년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E다.
- 2012년~2017년 동안 전체 판매액에 대한 G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매년 상승하였다.

	(가)	(나)	(다)	(라)
①	900	1,300	1,000	980
②	900	1,600	940	1,040
③	930	1,300	970	1,040
④	930	1,600	1,000	980
⑤	960	1,300	1,000	1,040

26. 다음 <표>는 A~D 스마트폰에 대한 특성별 평가 자료이다. 구매 매력도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마트폰의 구매 우선순위가 높아진다고 할 때, 4종류의 스마트폰을 구매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스마트폰에 대한 특성별 평가 결과

	A	B	C	D
배터리 성능	6.7	7.6	6.7	6.0
음질	7.2	9.1	6.5	7.2
디자인	5.4	8.0	7.3	9.2
강도	8.5	6.2	7.1	7.4
화질	7.7	5.6	9.0	6.0

- ※ 각 항목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 ※ 구매 매력도 지수 = 배터리 성능 × 0.25 + 음질 × 0.2 + 디자인 × 0.15 + 강도 × 0.1 + 화질 × 0.3

- ① A - B - C - D
- ② A - B - D - C
- ③ B - A - D - C
- ④ C - A - B - D
- ⑤ C - B - A - D

27. 다음 <표>는 한국의 대(對)싱가포르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주체별 투자현황 (1968년~2016년 누계 기준)
(단위: 건, 천달러)

투자주체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대기업집단	843	9,253,264	985	7,391,287
중소기업집단	894	1,132,090	1,171	889,798
개인기업집단	14	2,827	19	2,260
개인	421	330,804	494	315,494
기타	158	205,922	155	205,975
합계	2,330	10,924,907	2,824	8,804,814

<표 2> 한국의 對싱가포르 업종별 투자현황 (1968년~2016년 누계 기준)
(단위: 건, 천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3	15,723	15	12,095
광업	40	1,758,512	72	962,408
제조업	335	1,217,299	444	1,053,192
전기, 가스, 수도사업	45	376,016	76	262,039
건설업	97	186,458	118	128,135
도매 및 소매업	577	3,071,374	635	2,849,064
운수업	143	878,927	158	759,021
숙박 및 요식업	158	124,418	205	103,605
출판, 방송통신업	178	705,796	242	458,744
금융, 보험업	87	1,152,974	112	974,824
부동산, 임대업	265	718,873	276	588,188
과학, 기술서비스업	189	566,783	239	532,888
사업지원서비스업	97	118,279	110	93,022
교육서비스업	58	11,555	61	10,805
사회복지서비스업	1	119	1	119
여가관련서비스업	19	18,255	23	14,000
협회, 단체 및 기타	28	3,546	37	2,665
합계	2,330	10,924,907	2,824	8,804,814

<보 기>

- ㄱ. 투자주체별 대(對)싱가포르 송금횟수의 경우, 2016년에는 개인이 기타에 비해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ㄴ. 싱가포르에 투자한 대기업집단은 투자 금액 중 일부를 도매 및 소매업에 투자하였다.
- ㄷ. <표 2>의 모든 업종에서 신고건수 대비 신고금액이 송금횟수 대비 투자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없다.
- ㄹ.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요식업, 교육서비스업의 신고금액 및 송금횟수를 비교할 때, 신고금액이 제일 큰 업종과 송금횟수가 제일 많은 업종이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8. 다음 <표>는 각국의 현지 빅맥 가격과 환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각국 현지 빅맥 가격 및 환율

국 가	현지 빅맥 가격	환 율
베네수엘라	40.50볼리바르	4.50볼리바르/달러
스위스	6.30스위스프랑	0.90스위스프랑/달러
브라질	11.50헤알	2.00헤알/달러
노르웨이	40크로네	5.00크로네/달러
미국	4.50달러	1달러
영국	2.60파운드	0.60파운드/달러
일본	300엔	90.00엔/달러
한국	3,700원	1,100.00원/달러
중국	15위안	6.00위안/달러
인도	90루피	50.00루피/달러

※ 빅맥지수 = $\frac{\text{국가별 현지 빅맥 가격(달러)}}{\text{미국의 현지 빅맥 가격(달러)}}$

※ 단, 제시된 국가만을 고려함.

<보 기>

- ㄱ. 환율의 변동은 없고 영국의 빅맥 가격이 0.10파운드 낮아지면 달러로 표시한 영국의 빅맥 가격과 미국의 빅맥 가격이 같다.
- ㄴ. 달러로 표시한 빅맥 가격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비싸다.
- ㄷ. 달러로 표시한 빅맥 가격은 인도에서 가장 싸다.
- ㄹ. 달러로 표시한 빅맥 가격이 한국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나라는 일본이다.
- ㅁ. 빅맥 가격의 변동이 없이 노르웨이의 환율이 4.50크로네/달러로 떨어지면 노르웨이의 빅맥지수와 베네수엘라의 빅맥지수가 역전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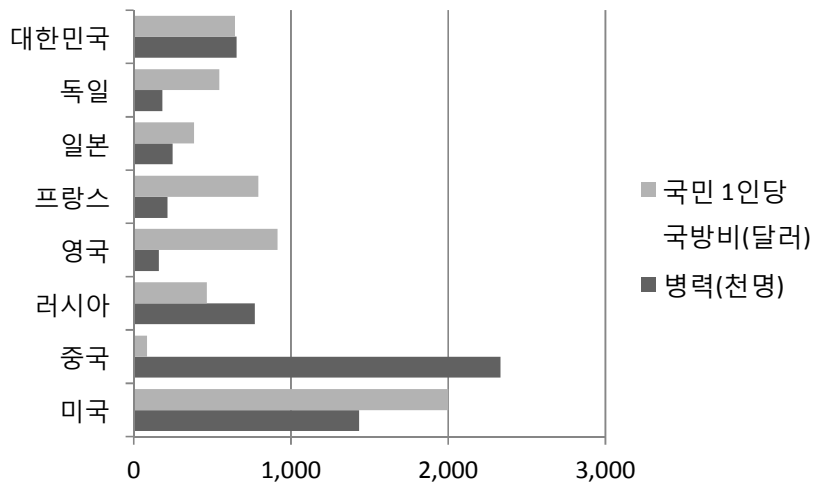
29. 다음 <표>는 주요국 국방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주요국 국방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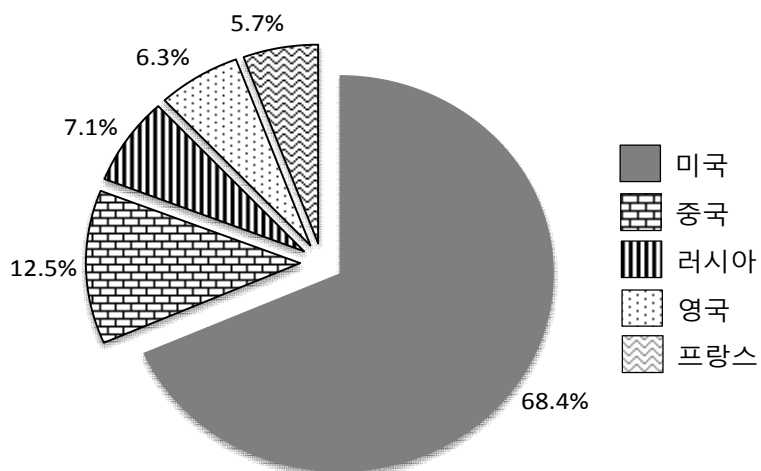
국가	국방비 (억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력(천명)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미국	6,334	3.80	1,433	2,001
중국	1,158	1.22	2,333	85
러시아	661	3.18	771	464
영국	580	2.25	159	915
프랑스	523	1.86	215	793
일본	487	0.99	247	383
독일	442	1.18	182	544
대한민국	304	2.40	655	644

※ 주어진 <표> 내의 국가로 한정함.

① 주요국 병력 및 국민 1인당 국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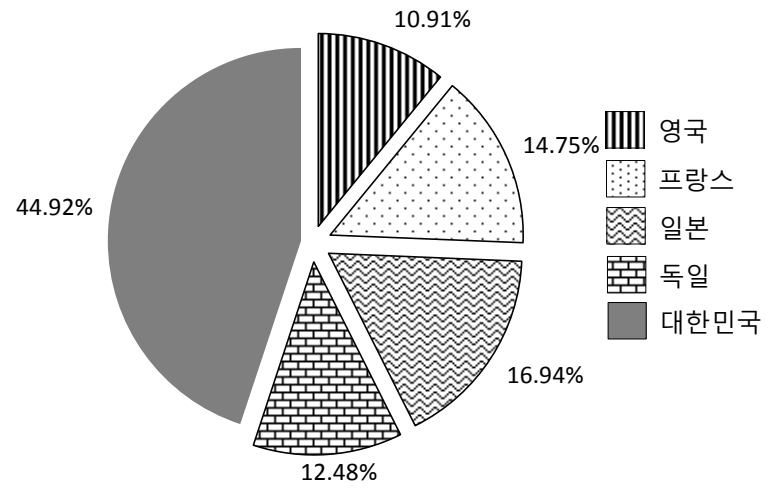


② 주요국 중 국방비 상위 5개국의 국방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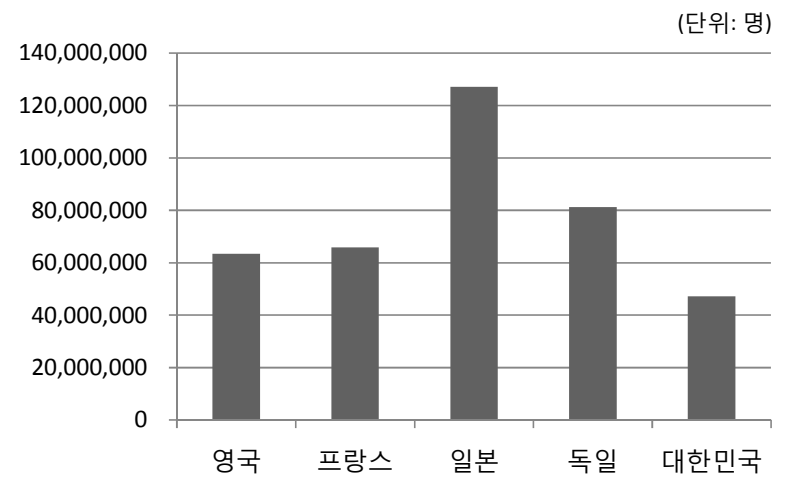
※ 상기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비율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③ 주요국 중 국방비 하위 5개국 간의 병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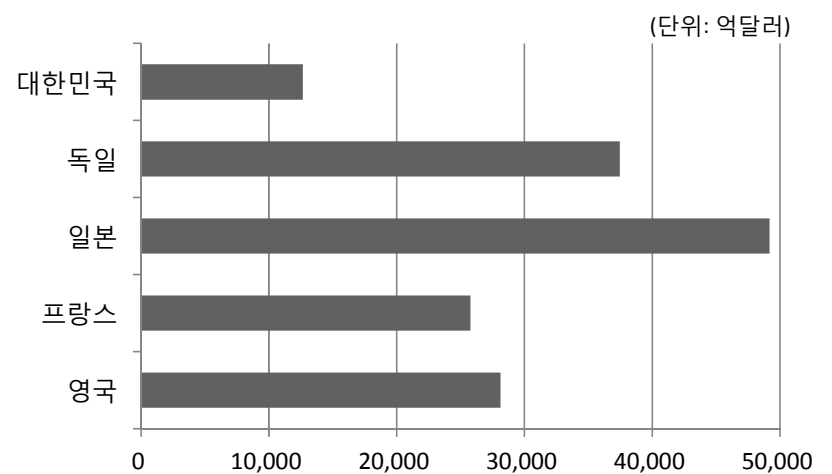


※ 상기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비율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④ 주요국 중 국방비 하위 5개국의 국민 수



⑤ 주요국 중 국방비 하위 5개국의 GDP



30. 다음 <표>는 전국 지역별 치매환자 수 및 치매안심센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전국 지역별 치매환자 수 및 치매안심센터 현황
(단위: 개소, 명)

지역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수	치매안심센터인력	
			기존인력	신규필요인력
합계	252	724,857	1,118	5,125
서울	25	115,835	281	0
부산	16	49,840	47	380
대구	8	32,057	63	125
인천	10	32,916	160	108
광주	5	17,780	11	143
대전	5	17,066	17	142
울산	5	8,652	25	65
세종	1	2,774	10	0
경기	42	136,911	136	1,034
강원	18	30,063	60	415
충북	14	26,910	26	298
충남	16	43,402	54	399
전북	14	39,154	41	244
전남	22	47,328	35	505
경북	25	58,981	77	637
경남	20	54,300	67	519
제주	6	10,888	8	111

- ※ 치매안심센터인력 = 기존인력 + 신규필요인력
- ※ 단, 제시된 지역만을 고려함.
- ① 기존인력 대비 신규필요인력의 비율은 제주가 가장 높다.

② 치매안심센터인력 중 기존인력이 신규필요인력보다 많은 곳은 서울, 인천, 세종뿐이다.

③ 치매안심센터 전체의 1/4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인력 1명당 치매환자 수는 서울이 가장 많다.

⑤ 서울은 울산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인력 1명당 치매환자 수가 4배 이상이다.

31. 다음 <표>는 한국의 시·도별 경지면적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D에 해당하는 항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4년~2016년 한국의 시·도별 경지면적
(단위: ha)

시·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1,691,111	1,679,023	1,643,599
서울특별시	480	476	422
부산광역시	6,351	6,008	5,934
대구광역시	8,660	8,291	8,102
인천광역시	20,098	20,114	19,511
광주광역시	10,370	10,261	9,878
대전광역시	4,385	4,305	4,072
울산광역시	11,369	11,003	10,889
세종특별자치시	8,444	8,260	8,102
경기도	176,028	175,417	169,435
강원도	108,727	107,277	104,330
충청남·북도	331,312	330,355	324,261
A	204,612	203,559	200,720
B	305,889	304,799	298,095
C	277,650	274,487	268,461
D	154,050	151,769	149,247
제주특별자치도	62,686	62,642	62,140

<조 건>

- 전라북도의 경지면적은 인천광역시의 경지면적에 비해 해당 기간 동안 매년 10배 이상이다.
- 전라남도의 경지면적은 해당 기간 동안 매년 경상남도의 경지면적의 1.5배 이상이다.
- 경상북도의 경우 2014년 대비 2016년 경지면적 감소폭이 <표>의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크다.

- A

B

C

D
- ①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②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③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④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32. 다음 <표>는 국회사무처 법제관 A~E에게 의뢰된 법률안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6년 법제관 A~E에게 의뢰된 법률안 건수

	분류	A	B	C	D	E
상반기	제정	4 (1)	0 (0)	2 (0)	1 (0)	2 (1)
	전부개정	3 (1)	2 (0)	1 (㉠)	5 (2)	2 (0)
	일부개정	27 (4)	30 (6)	26 (11)	14 (㉡)	38 (10)
하반기	제정	5 (3)	2 (㉢)	3 (1)	2 (0)	3 (㉣)
	전부개정	4 (1)	3 (0)	6 (2)	5 (2)	4 (1)
	일부개정	18 (6)	17 (5)	23 (8)	19 (3)	25 (9)

※ 법률안 의뢰 건수 = 법률안 처리 건수 + 법률안 철회 건수
 ※ ()안의 수는 법률안 철회 건수를 의미함.

<정 보>

- 법제관 법제 실적 평가 점수 산출방식 -

- 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5점, 전부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3점,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는 1건당 1점을 부여한다.
- 법률안 철회는 1건당 -1점으로 계산한다. 단,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는 1건당 0점으로 계산한다.
- 2016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 하반기에 실적 평가 점수가 상승한 법제관의 경우, 연간 법제 실적 평가 점수에 가산점 20점을 부여한다.

<보 기>

- ㄱ. A~E 중 연간 법제 실적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법제관은 C이다.
- ㄴ. A~E 중 연간 법제 실적 평가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는 법제관의 수는 최소 2명, 최대 4명이다.
- ㄷ. ㉠, ㉡, ㉢, ㉣의 값이 모두 0이라면, A~E 중 법제 실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상반기의 순위와 하반기의 순위가 동일한 법제관은 없다.
- ㄹ. C의 법제 실적 평가 점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에서 동일 기간 내 D의 법제 실적 평가 점수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33. 다음 <표>는 항공 정비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세계 항공기 보유 현황 및 전망

(단위: 대, %)

연도 지역	2016	2036	연평균 성장률 (2016년~2036년)
아시아	6,830	17,520	4.8
북미	7,060	10,130	1.8
중동	1,430	3,900	5.1
남미	1,550	3,660	4.4
유럽	4,800	8,160	2.7
오세아니아	1,090	1,980	3.0
아프리카	720	1,600	4.1
전세계 합계	23,480	46,950	

<표 2> 세계 항공정비 시장 분야별 구성비

(단위: %)

연도 정비분야	2016	2026
엔진 정비	40	41
부품 정비	22	22
운항 정비	17	16
기체 정비	14	12
개조	7	9
합계	100	100

- ① 2036년 전세계 항공기 보유대수는 46,950대로 2016년 23,480대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② 2016년 대비 2036년에 아시아 지역과 북미 지역 모두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항공기 보유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③ 2016년 세계 항공정비 시장에서 엔진 정비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으며 부품 정비, 운항 정비, 기체 정비가 각각 22%, 17%, 14%를 차지하고 있다.
- ④ 2026년 세계 항공정비 시장의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한다면 같은 기간 동안 기체 정비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 ⑤ 2016년~2036년 항공기 보유 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중동이 5.1%로 가장 높으며 아시아 4.8%, 남미 4.4% 순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4. 다음 <표>는 A국의 연도별 농가소득과 어가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소득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37,197
농업의존도	31.4	29.0	29.4	29.1	29.5	30.2	27.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66.8	59.1	57.6	62.5	61.5	64.4	63.5

<표 2>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어가소득	35,696	38,623	37,381	38,586	41,015	43,895	47,077
어업의존도	46.5	52.9	52.3	48.0	51.0	53.0	57.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비율	74.2	75.7	69.4	69.9	72.2	76.0	80.4

※ 농가(어가)소득 = 농업(어업)소득 + 농업(어업)이외소득

※ 농업(어업)의존도 = $\frac{\text{농업(어업)소득}}{\text{농가(어가)소득}}$

<보 기>

- ㄱ. 제시된 기간 동안 연도별 어가소득은 연도별 농가소득보다 매년 10% 이상 높다.
- 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소득 및 어업소득은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ㄷ.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이외소득과 어업이외소득은 전년대비 증감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 ㄹ. 2016년 대비 2020년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2012년 대비 2016년의 농가소득 증가율과 동일하고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2016년과 동일하다면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70% 이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5. 다음 <표>는 A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A산업의 총생산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생산액	33,665	38,774	42,242	46,048	52,016

<표 2> A산업의 생산규모별 업소 수 및 생산액

(단위: 개,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업소 수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100억 이상	86	26,549	86	28,950	99	32,018
50억 이상~ 100억 미만	79	5,191	83	5,610	84	5,650
10억 이상~ 50억 미만	329	7,405	361	8,106	391	9,903
1억 이상~ 10억 미만	724	2,882	803	3,156	805	4,185
1억 미만	1,389	215	1,453	226	1,613	260
합계	2,607	42,242	2,786	46,048	2,992	52,016

<표 3> A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업소 수 및 생산액

(단위: 개,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업소 수	생산액	1인당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1인당 생산액	업소 수	생산액	1인당 생산액
300인 이상	7	5,233	1.6	6	4,784	1.5	9	4,876	1.1
200인 ~299인	10	5,996	2.4	14	7,737	2.4	16	9,851	2.3
100인 ~199인	43	7,650	1.3	50	8,547	1.3	50	9,723	1.4
50인 ~99인	89	8,852	1.4	92	9,597	1.5	113	10,500	1.3
20인 ~49인	265	7,784	1.0	286	8,154	0.9	338	9,485	0.8
19인 이하	2,193	6,727	0.6	2,338	7,229	0.6	2,466	7,581	0.5
합계	2,607	42,242	1.1	2,786	46,048	1.1	2,992	52,016	1.0

<보 기>

- ㄱ. 2013년 종사자 수가 19인 이하인 업소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업소보다 10인 미만인 업소가 더 많다.
- ㄴ.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업소의 업소당 생산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한다.
- ㄷ.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산업 총생산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평균은 10% 미만이다.
- ㄹ. 생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존재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36. 다음 <표>는 영농주의 연령과 영농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영농주 연령대별, 영농규모별 농가 수 현황(2015년)
(단위: 호)

연령대 영농규모별 (농가호수)	40세 이하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계
0.3ha 미만	2	9	19	36	109	175
0.3ha 이상 0.5ha 미만	1	4	13	45	122	185
0.5ha 이상 1.0ha 미만	2	11	28	89	235	365
1.0ha 이상 2.0ha 미만	4	16	54	132	170	376
2.0ha 이상 5.0ha 미만	3	16	59	111	80	269
5.0ha 이상	1	6	57	54	12	130
계	13	(가)	230	467	(나)	(다)
평균영농규모(ha)	1.7	2.9	3.6	2.3	1.1	1.9

※ 1ha = 100a

- ① 2015년에 농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0ha 이상 2.0ha 미만의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로, 전체 농가 중 22%를 넘지 않는다.
- ② 2015년에 0.5ha 미만의 영농규모인 농가 중 영농주가 71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65%를 넘지 않는다.
- ③ 2015년에 41~50세의 영농주가 운영하는 농가 중 영농 규모가 2.0ha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33%를 넘지 않는다.
- ④ 2015년의 전체 영농 규모는 2,850a이다.
- ⑤ (가), (나), (다)에 들어갈 숫자를 더하면 2,300 이상이다.

37. 다음 <정보>는 A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자료이다. 甲~戊 중 실업급여 지급액이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은?

<정 보>

1. 실업급여 지급액
= 기준액(퇴직 전 평균일급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기준액의 경우 상·하한액이 있음.

퇴사일	상한액(원)	하한액(원)
2017년 3월 이전	45,000	43,000
2017년 4월~12월	50,000	46,000
2018년 1월 이후	60,000	54,000

2. 소정급여일수

(연령 기준: 퇴사 당시 만 나이)

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생년월일	퇴직 전 평균일급(원)	퇴사일	가입기간
① 甲	1965.11.13.	180,000	2018.01.05.	20년 2개월
② 乙	1970.02.02.	100,000	2017.12.18.	15년 3개월
③ 丙	1978.05.31.	150,000	2017.04.01.	8년 6개월
④ 丁	1984.08.01.	80,000	2017.01.01.	9년 0개월
⑤ 戊	1991.02.28.	120,000	2017.05.31.	5년 4개월

38. 다음 <정보>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대한 자료이다. <정보>와 <조건>에 근거하여 도시 A와 도시 B에 각각 유입될 중간도시 C의 거주자 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 보>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R(A)}{R(B)} = \frac{P(A)}{P(B)} \left[\frac{D(B)}{D(A)} \right]^2$$

- R(A) : 도시 A의 상권영역 (중간도시에서 도시 A로 유입되는 소매인력)
- R(B) : 도시 B의 상권영역 (중간도시에서 도시 B로 유입되는 소매인력)
- P(A) : 도시 A의 인구(명)
- P(B) : 도시 B의 인구(명)
- D(A) : 도시 A로부터 중간도시까지의 거리(km)
- D(B) : 도시 B로부터 중간도시까지의 거리(km)

<조 건>

- ㄱ. 인구 40,000명의 도시 A와 인구 50,000명의 도시 B 사이에 인구 6,000명의 중간도시 C가 있다.
- ㄴ. 중간도시 C는 도시 A로부터 8km, 도시 B로부터 4km가 떨어져 있다.
- ㄷ. 중간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가 없고 도시 A 또는 도시 B 중 어느 한 곳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 ①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1,000명, 도시 B로 약 5,000명이 유입될 것이다.
- ②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2,000명, 도시 B로 약 4,000명이 유입될 것이다.
- ③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3,000명, 도시 B로 약 3,000명이 유입될 것이다.
- ④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4,000명, 도시 B로 약 2,000명이 유입될 것이다.
- ⑤ 중간도시 C의 거주자는 도시 A로 약 5,000명, 도시 B로 약 1,000명이 유입될 것이다.

39. 다음 <표>는 2014년 세계 수산물 생산규모 상위 15개국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세계 수산물 생산현황 및 생산규모 순위(2014년)

(단위: 천M/T)

순위	국가명	수산물 생산규모			비중(%)
		합계	어획규모	양식규모	
1	중국	76,149	17,352	58,797	38.9
2	인도네시아	20,884	6,508	14,376	10.7
3	인도	9,603	4,719	4,884	4.9
4	베트남	6,331	2,919	3,412	3.2
5	미국	5,410	4,984	426	2.8
6	미얀마	5,048	4,083	965	2.6
7	일본	4,773	3,753	1,020	2.4
8	필리핀	4,692	2,354	2,338	2.4
9	러시아	4,396	4,233	163	2.2
10	칠레	3,820	2,593	1,227	2.0
11	노르웨이	3,788	2,456	1,332	1.9
12	페루	3,714	3,599	115	1.9
13	방글라데시	3,548	1,591	1,957	1.8
14	한국	3,308	1,737	1,571	1.7
15	태국	2,704	1,770	934	1.4
상위 15개국 합계		158,168	64,651	93,517	80.8
전세계 합계		195,784	94,645	101,139	100

※ M/T : 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수량 단위

<보 기>

- ㄱ. 2014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 통계조사 대상 국가는 최소 29개국 이상이다.
- ㄴ. 2014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에 있어, 어획규모의 세계 순위보다 양식규모의 세계 순위가 높은 국가는 8개국이다.
- ㄷ. <표>의 상위 15개국 중 각국의 수산물 생산규모에서 양식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국가는 7개국이다.
- ㄹ. 2014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에 있어, 어획규모와 양식규모 각각의 순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뿐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40. 다음 <표>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2년~2016년)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496.1 (219.9)	520.4 (216.6)	519.9 (201.0)	504.8 (182.6)	499.4 (166.9)
공기업	353.2 (207.4)	373.7 (214.0)	377.1 (207.1)	365 (193.9)	362.6 (183.4)
시장형	155.6 (182.8)	168.5 (194.1)	175.9 (195.7)	171.4 (174.4)	168.2 (164.7)
준시장형	197.6 (231.9)	205.2 (233.7)	201.2 (218.2)	193.6 (215.4)	194.4 (203.6)
준정부기관	131.2 (334.7)	135.1 (282.6)	130.4 (228.0)	125.1 (183.4)	122.3 (152.7)
기금관리형	86.8 (327.5)	87.9 (309.5)	79.3 (251.7)	71.4 (193.5)	68.8 (152.9)
위탁집행형	44.4 (349.6)	47.2 (243.3)	51.1 (198.8)	53.7 (171.6)	53.5 (152.4)
기타공공기관	11.7 (72.7)	11.6 (64.8)	12.4 (64.2)	14.7 (73.1)	14.5 (67.4)

※ 괄호 안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 자산 = 부채 + 자기자본

<표 2>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2년~2016년)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721.7	760.7	778.5	781.3	798.7
공기업	523.5	548.3	559.2	553.2	560.3
시장형	240.7	255.3	265.8	269.7	270.4
준시장형	282.8	293.0	293.4	283.5	289.9
준정부기관	170.4	182.9	187.6	193.3	202.4
기금관리형	113.3	116.3	110.8	108.3	113.8
위탁집행형	57.1	66.6	76.8	85.0	88.6
기타공공기관	27.8	29.5	31.7	34.8	36.0

- ①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은 798.7조원으로 전년대비 17.4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총액은 499.4조원으로 전년대비 5.4조원 감소하였다.
- ② 2016년 기준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166.9%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 ③ 2016년 전체 공기업 자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6년 전체 준정부기관의 자산의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낮다.
- ④ 전년대비 2016년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자기자본 증가율보다 높다.
- 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12년 대비 2016년 자산 증가율은 기타공공기관의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보다 높다.